

마태오 복음서 9장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마르 2,1-12; 루카 5,17-26)

1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은 가파르나움이다.¹⁾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것이다.²⁾

2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평상에 눕어 그분께 데려왔다.³⁾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⁴⁾

3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5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6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⁵⁾

7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8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 “그들의 믿음”은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끈기 있고 확고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2) 병은 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여겼다. 하느님에게서 죄를 용

1) 마르 2,1 :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2) 마태 17,24 :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3) 사도 9,33 : 거기에서 베드로는 애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팔 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4) 루카 7,48 :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5) 다니 7,14 :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도 9,34 :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애네아스가 일어났다.

서 받아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 3)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신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선언하신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율법 학자들은 하느님 모독죄라 여긴다.
- 4)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를 건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느님을 모독하셨다는 율법학자들의 비난을 잠재우신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곧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하신다.⁶⁾
- 5) 군중이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군중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마태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마르 2,13-17; 루카 5,27-32)

- 9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⁷⁾
- 10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⁸⁾

- 1) 마태오는 세리였다. 당시 세리는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 죄인 취급을 받았다. 죄인인 마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결단을 한다.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결단은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 2)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함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이다.

- 11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식사는 사람들 사이의 일치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때이다. 율법 준수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알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세리와 죄인”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종하는 그것조차 피하였다. 더구나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죄인 곧 부정(不淨)한 자의 초청을 받아들이시어, 다른 많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 이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유다교 라삌들의 중요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신다.⁹⁾

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88쪽, 각주 8 참조.

7) 요한 1,43 : 이튿날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8) 루카 7,34 :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9) 앞, 89쪽, 각주 13.

12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병든 이들은 바로 죄인들을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자신이 튼튼한 이, 곧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한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¹⁰⁾

예수님께서서는 제물을 바치는 희생 제사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근본 계명을 소홀히 하는 종교의식을 단죄하는 것이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희생 제사는 의미가 없다, 위선이다.

단식 논쟁 - 새것과 헌것(마르 2,18-22; 루카 5,33-39)

14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¹¹⁾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바리사이들은 한 주간에 이틀씩 금식하였다.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1) ”신랑“의 상징은 일반적으로는 하느님을,¹²⁾ 때로는 미래의 메시아-임금을,¹³⁾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¹⁴⁾

2)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은 혼인 잔치의 손님에 비유하

10) 루카 19,10 :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11)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가 죽은 뒤만이 아니라, 2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다고 전해진다(앞, 각주 16).

12) 예레 2,2 : “가서 예루살렘이 들도록 외쳐라. —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네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썩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13) 시편 45,7-8 : 오, 하느님 같으신 분! 당신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흠입니다.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에 앞서 당신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14) 위, 각주 20.

2코린 2,11 :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신다. 제자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이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는 단식할 것이다.

16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형겔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¹⁵⁾

17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1) 새것과 헌것은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새것은 곧 복음을, 헌것 곧 유다교에다 맞출 수는 없다.¹⁶⁾ 따라서 “새 천 조각”과 “새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한다. “헌 옷”과 “헌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 율법에 얽매어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야 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마르 5,21-43; 루카 8,40-56)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서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¹⁷⁾

19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1) 유대인들은 여러 기회에 다른 이의 머리에 양손을 얹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얹는다.’는 한 손을 뜻한다. 이는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행동과 능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¹⁸⁾

2) 회당장은 이미 딸이 죽었음에도 예수님께 청한다. 회당장은 이미 예수님을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움직이신다. 따라가신다. 진실한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15) 2코린 t,17 :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16) 앞, 각주 22.

17) 마르 6,5 :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루카 13,13 :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8) 앞, 90쪽, 각주 25.

20 그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¹⁹⁾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21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²⁰⁾

22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²¹⁾

1) 예수님도 신심 깊은 모든 유대인처럼 옷자락에 술을 달고 다니셨다. 특히 바리사이들은 종교적 허영심에 그것을 길게 늘였다. 하늘을 상징하는 자줏빛 실 한 가닥이 끼어 있는 이 술은 하느님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이 술을 중히 여기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나온다.²²⁾

2) “옷에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라는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은 순수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병의 치료를 뜻한다.²³⁾ 건강의 회복이다.

23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24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²⁴⁾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25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²⁵⁾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26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1) “물러들 가라.”는 명령은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이다.

2) 성경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다. 잠을 깨우실 수 있는 분 곧 죽음에서

19) 레위 15,25 :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20) 사도 19,12 : 그의 살갓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21) 사도 3,16 :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22) 앞, 각주 26.

23) 사도 16,31 :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에페 2,8-9 :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24) 요한 11,11 :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5) 마르 1,31 :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졌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살여탈권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이시다.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 27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28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 29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²⁶⁾

- 1) “다윗의 자손”은 일반 대중이 메시아들 일컫는 칭호로써,²⁷⁾ 눈먼 사람 둘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한 것이다.
- 2) 기득권을 가진 건강한 자들은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눈먼 두 사람은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
- 3)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고백함으로써 치유 받은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금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다

- 32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 33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²⁸⁾
- 34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²⁹⁾

26) 마르 7,36 :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27) 앞, 각주 32.

28) 마르 2,12 :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29) 루카 11,14-15 : 예수님께서 병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

- 1) 마태오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전함으로써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 장차 유대인들 사이에 일으키게 될 논쟁과 분열을 예고한다.³⁰⁾
- 2)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어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로 돌리는 악을 행한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마르 6,6L.34; 루카 10,2)

- 35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³¹⁾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³²⁾
- 36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³³⁾
-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 38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 1) 마태오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신 분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자세와 제자들의 사명 수행을 환기시킨다. 곧 착한 목자의 자비심이다.³⁴⁾
- 2) 수확은 일반적으로 최종 심판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 심판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곧 예수님과 제자들의 직무 수행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다가왔기 때문이다.³⁵⁾
- 3) 추수할 일꾼은 복음 선포자들이다. 주임님은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선발하시고 파견하시지 않으면

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마르 3,22 :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30) 앞 91쪽, 각주 35.

31) 마르 1,36 :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32) 마르 1,34 :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3) 마르 6,34 :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민수 27,17 : 그들 앞에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역대 18,16 :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34) 앞, 각주 37 참조.

35) 위, 각주 38.

일꾼도 없다. 그러므로 일꾼들 곧 복음 선포자 목자들을 보내 주십사 끊임없이 청하며, 그분이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답하며 나서야 한다. 수확할 밭은 넓는데 일꾼이 적다. 현대는 추수할 일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추수할 밭은 더 넓어진다.